

어린이 책꽂이



▲바람처럼 달렸다=작가 김남중씨의 신작 동화. 자전거를 몹시 좋아하는 소년 '동주'의 시선으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자전거와 함께하며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그렸다. 자전거로 인해 겪게 되는 일들을 독립된 12편의 연작 형식으로 이어진다. 어린이 되기 위해 배워야 할 세상의 이치들을 친근하게 풀어냈다. <웅진주니어·9000원>



▲뒤죽박죽=바나나 껍질 하나 버렸을 뿐인데.. 무심코 버린 바나나 껍질 때문에 한가롭던 마을에서 벌어지는 소동의 생생한 현장을 담았다.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점점 커지는 사건들을 익살스런 그림과 재치 있는 이야기로 풀어냈다. 아이들에게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 준다. <두레아이들·9800원>



▲친구야, 쫓겨! =5학년 '누리가' 들려주는 '주의 결핍과 과잉장애'(ADHD)를 가진 말쑥꾸러기 문제아 동생 '민구' 이야기. ADHD를 앓는 동생을 둔 누나의 외로움과 엄마의 고통, 문제로부터 회피하고 싶은 아빠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민구는 엄마의 무한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해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 간다. <미래아이·9000원>



▲백산의 책 =조선의 걸출한 시인이자 소설가, 사상가였던 허균의 삶과 그가 쓴 것으로 전해지는 '홍길동전'에 대한 이야기에 상상력을 더해 쓴 새로운 동화. 고아로 태어나 저잣거리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소년 '백산'을 '허 참판'과 함께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두 사람의 교감을 재미있게 그렸다. <낮은산·9500원>



▲큰 토끼의 비밀 ='늑대 잡는 토끼'의 마카엘 에스코피에의 두번째 연작. 토끼 나라에 큰 일이 생겼다. 당근이 하나 훔쳐버리는 것이었다. 그러자 큰 토끼가 나서 검은색 토끼와 회색 토끼 때문이라며 쫓아내라고 선동한다. 뭔가 이상한 걸 눈치 챈 작은 토끼가 기지를 발휘해 다른 토끼들과 힘을 합쳐 마침내 큰 토끼를 쫓아낸다. <책담배·9500원>



▲뒤편지는 행복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림책. 뒤편지 재고 세는 일에만 빠져있던 '막스무스' 할아버지가 한 남자 아이를 만나 서서히 변화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는 내용이다. 19세기의 고풍스런 도시와 사람들을 아름답게 묘사한 그림이 돋보인다. <주니어랜덤·9000원>



▲뿔! 도깨비 오형제 =익살스런 도깨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동화. 피자와 떡볶이보다 팔각이랑 인절미, 옥사발을 더 좋아하고 기분 좋으면 언제든 노래하고 춤추는 도깨비 친구. 무섭고 심술궂은 도깨비가 아닌, 밝고 즐겁고 유쾌한 도깨비들을 만날 수 있다. 디지털 시대, 색다른 도깨비들을 통해 따뜻한 감성을 배울 수 있다. <그린·북·9000원>

▲오십 번은 너무해 =박재란씨의 신작이다. 숙제 때문에 인생이 고달픈 한 초등학생의 이야기. 초등학교 2학년인 '영주'가 받아쓰기 시험에서 틀린 문장을 오십 번씩 쓰는 숙제를 하면서 겪게 되는 일을 그렸다. 영주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 숙제를 회피하려 하지만 결국 숙제의 필요성을 깨달아가게 된다. <사계절·8500원>

잔인한 독재에 짓밟힌 여성과 국민의 파멸

염소의 축제 1·2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지음



독재는 인간에서 어떤 상처를 남길까? 무아마트 카다피 리비아 국가 원수는 권력을 잡은 뒤 무려 41년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현재 전세계에서 30년 이상 권좌에 앉아 있는 독재자는 테오도로 주제 에두아르두 투스산투스 알골라 대통령,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 등 모두 4명이다.

최근 스웨덴 한림원은 한국의 고은 시인 대신, "권력 구조의 지도를 그려내고 개인의 저항과 붕괴, 좌절을 예리하게 묘사했다"며 페루 작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에게 올해 노벨문학상을 안겼다.

염소의 축제 1·2는 32년간 도미니카 공화국을 지배한 독재자 라파엘 트루히요를 소재로 한 소설이다. 바르가스 요사는 '도시와 개들' '녹색의 집' '카테드랄 주점에서의 대화' 등 초기작에서 정치, 사회에 대한 강력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1970년대 이후에는 '판탈레온과 특별봉사대' '나는 홀리아 아주머니와 결혼했다' '새엄마 찬양' 등 유머와 에로티시즘을 담은 다양한 소설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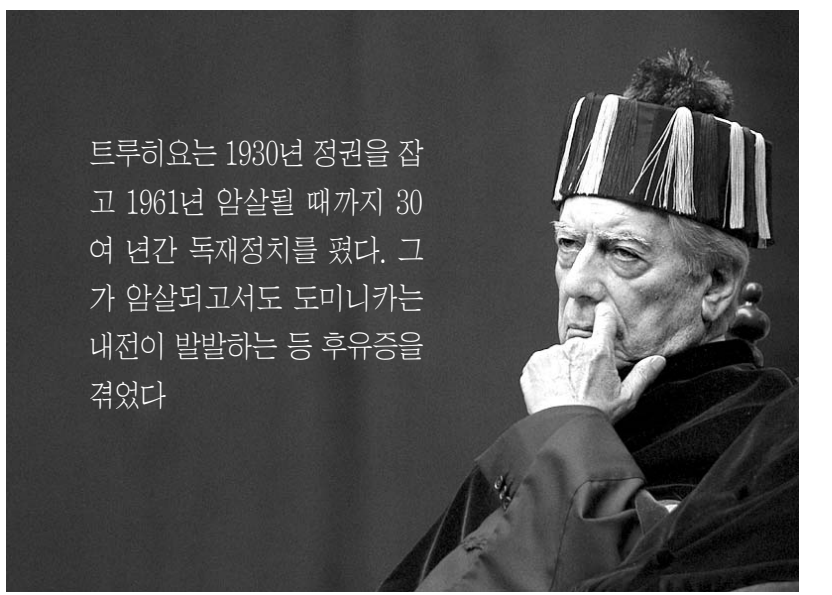
'염소의 축제'는 초기의 비판적 경향에서 벗어났던 작가가 다시 진지한 주제로 돌아와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는 점이 눈에 띈다. 서로 다른 관점의 세 가지 축의 이야기가 소설을 장식한다. 각각 시공간이 다르지만 세 개의 이야기는 트루히요 독재라는 역사적 상황을 중심으로 맞물리며 하나로 완성된다.

참혹한 독재의 역사를 통렬히 그리면서도, 시공간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서사는 문학적이고 흥미진진하다. 트루히요는 1930년 정권을 잡고

중심축은 주인공은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뉴욕에서 성공한 변호사로 살아온 우라니아의 이야기다. 소설 속 현재 시점인 1996년, 49세인 그는 35년 만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돌아온다. 독재자의 충성스러운 각료의 딸이었던 그녀는 트루히요에 얽힌 끔찍한 사건 이후 아버지를 증오하며 도미니카를 떠났다.

두 번째 축은 트루히요에 대한 이야기다. 그는 주변 각료들의 아내와 딸까지 성적으로 정복하는 방탕한 성욕의 소유자이자 교활한 독재자다. 번식력의 상징인 염소는 국민이 그를 부르는 별명이다. 공포의 대상이지만 소변을 통제하지 못해 바지를 적시는 노인이기도 하다.

세 번째 축은 독재자 응징에 대한 관점이다. 각각의 이유로 독재자 살해 음모에 가담한 7명의 암살자가 고속도로에서 트루히요의 차를 기다리고, 이들의 회상을 통해 고통스러운 독재 시대의 참상이 드러난다. 트루히요는 1930년 정권을 잡고



'염소의 축제'는 2010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문학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1961년 암살될 때까지 30여 년간 독재 정치를 폈다. 그가 암살되고서도 도미니카 내전이 발발하는 등 후유증을 겪었다. 작가는 트루히요와 7명의 암살자 등

실존인물과 창조한 인물인 우라니아를 통해 잔인한 독재자에 짓밟힌 도미니카 여성과 국민의 파멸을 그린다. <문학동네·각 권 1만2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성공한 삶 뒤에 인맥구축이 있다

혼자 일하지 마라 키이스 페라지 지음



한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은 정예 참모진의 두뇌를 빌려 국정을 운영하는 데 최대한 이용한다. 최고의 스포츠 영웅은 전담 코치진들이 그의 몸 상태를 조직적으로 관리한다. 기업의 CEO 또한 뛰어난 이사진과 함께 전략을 짜고 기업을 이끈다.

이처럼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성공의 향방을 모색하는 것이 성공의 기본공식이 되어가고 있다.

'관계 네트워킹'의 힘을 일깨워준 베스트셀러 '혼자 밥먹지 마라'의 저자 키이스 페라지가 이번에는 그 실천편 '혼자 일하지 마라'를 펴냈다. 원래 'Who's got your back?'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제복처럼 간단하다. 혼자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책은 개인적인 삶에서도 유용하지만 특히 비즈니스, 즉 일하는 사람끼리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방법을 마음가짐부터 실천방안까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일러준다.

또한 생명줄처럼 든든한 '라이프라인 관계'(lifeline relationship)를 만드는 데 필요한 크고 작은 진실과 유용한 팁들을 9단계의 드림팀 만들기 과정을 통해 설명한다.

저자는 "성공을 위한 삶에는 관대함과 취약함, 솔직함, 책임감 등 관계의 토대를 만드는 4가지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맥 구축의 방법론을 제시한다. <랜덤하우스·1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뉴스 생산과 유통의 변화된 모습

소셜미디어시대... 공혼의 지음



이제 TV와 신문과 같은 기존의 미디어는 뉴스 생산과 확산에 있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Social Network Service)와 경쟁을 해야 할 처지가 됐다. 소셜네트워크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혁신적인 스마트 기기와 만나 뉴스 생산과 소비의 주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형 열린매체 '위키투리'(wikitree.co.kr) 발행인이자 (주) 소셜뉴스의 대표이사인 공혼의씨가 쓴 '소셜미디어시대 보고 듣고 뉴스하라'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소셜 모바일 시대의 뉴스 생산과 유통, 수익창출의 방안을 살피는 연구서다. 저자는 국내·외 소셜네트워크 마케팅의 사례 등을 분석하고 향후 뉴스와 광고 콘텐츠 시장의 각축에서 성공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책은 또 소셜 모바일 시대에 맞게 뉴스를 쓸 수 있는 방법과 도구를 제시한다. 과거 같으면 신문사나 방송사, 포털이 독점하고 있었던 플랫폼들이 누구나 그것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면서 사진이나 동영상, 심지어 증강현실까지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따라서 이들 플랫폼을 이용하면 전혀 새로운 스토리텔링(뉴스 쓰기)이 가능해진다.

뉴스 생산에 참여하고 싶은 스마트 리더나 언론매체에 종사자, 그리고 콘텐츠 마케팅을 생각하는 기업 관계자들 모두가 눈여겨 봐야 할 책이다. <한스미디어·1만4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항해를 내해로 한 대백제건설자

근초고대왕 윤영용 지음



광개토대왕보다 더 넓은 영토를 경략했던 백제 13대 대왕 근초고(346~375년)의 활약상을 담은 대하역사소설 '근초고대왕' (전5권)이 완간됐다.

저자 윤영용씨는 지금까지 정사로 배워 온 것과는 다른 '대백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항해를 내해(內海)로 삼아 소금과 비단, 수리농업, 철정(鐵釘), 삼 등으로 부를 일으켜 교역하며 대륙의 동부 전역과 한반도 서해, 일본의 규슈와 본토, 대만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일원을 장악했던 근초고의 대백제, 통일신라시대 대학자 최치원 열전은 고구려·백제 전성 시에 강병 백만이 남으로는 오와 월을 침공하고 북으로는 유·연·제·노를 흔들어 백제가 중국의 큰 두려움이 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승자의 역사에서도 드러나는 근초고의 백제는 현 난하 서쪽의 요서 지역과 북경 지역까지 장악해 요서군, 진평군 등 백제군을 설치한 후 남쪽으로 중국 진과 결전을 벌여 이미 구축한 양자강 일원을 넘어 오나라와 월나라 지역을 다 장악했다.

저자는 근초고를 가가울 (근(近)-본받을 초(肖)-옛날 고(古)로 풀이하며, 옛것으로 오늘에 가까이 본받을 수 있는 '왕 중의 왕'이 있었다고 말한다.

6일부터 KBS 대하드라마 '근초고왕'이 방송될 예정이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재미를 준다. <도서출판 웰컴·각 권 1만2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전복장이' (Abalone Restaurant) featuring various abalone dishes and a building image. Text includes: 전복구이전문점, 전복장터, 양식장 직영 도·소매,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약문의 062-576-8600>